



고구려의 기상으로 꽃피운 물 관리 전문 행정

구리시 환경관리사업소



구리 한강시민공원에는 해마다 봄이 오면 100만 명 이상이 찾아와 유채꽃 축제를 즐기며 향긋한 봄기운을 만끽한다. 싱그러운 꽃무리 옆으로 흐르는 푸른 공기와 맑은 강줄기, 깨끗한 것보다 깨끗하지 않은 것을 찾기가 힘든 곳이 구리시다.

아차산이 자연스럽게 서북풍의 병풍이 되어주는 곳, 한강과 왕숙천이 살아 숨 쉬는 모든 것들의 기운을 깨끗이 정화시켜 주는 곳, 구리시는 그야말로 최고의 자연환경을 가진 도시이다. 이러한 구리시가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고구려의 기상, 대한민국 구리시'라는 비전을 내세우고 고구려의 강인한 기상을 본받아 대한민국 중심 도시, 친환경 생태도시로 도약하려 준비 중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맑은 물을 지키는 환경 파수꾼, 구리시 환경관리사업소가 있다.

변하지 않는 원칙, 기본에 충실한 물 관리

환경관리사업소 수도과에는 수도행정팀, 수도시설팀, 급수팀, 정수팀 등 4개 분야에 43명이, 하수과에는 하수행정팀, 하수시설팀, 하수처리팀, 위생처리팀 등 4개 분야에 35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직원들 모두가 하루하루 새로운 도전정신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구리시는 상하수도과 관련한 모든 통계수치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구리시의 상수도 보급률은 현재 99.97%입니다. 경기도 내에서도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수준입니다. 뉴시터나 창고 등의 미사용 시설물을 제외한다면 미급수 인구는 3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동혁 수도과장은 이러한 보급률이 가능했던 것은 적극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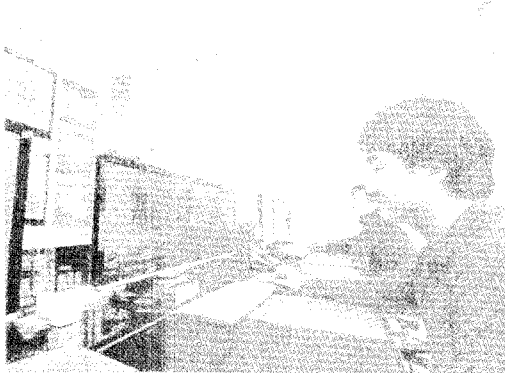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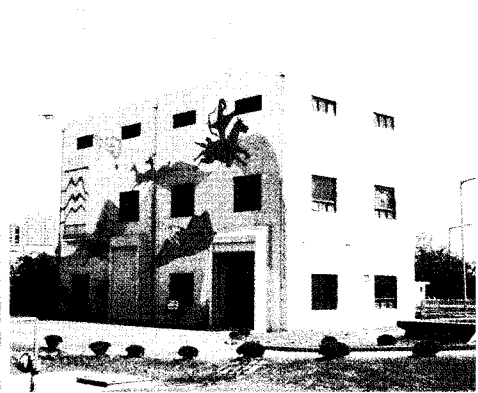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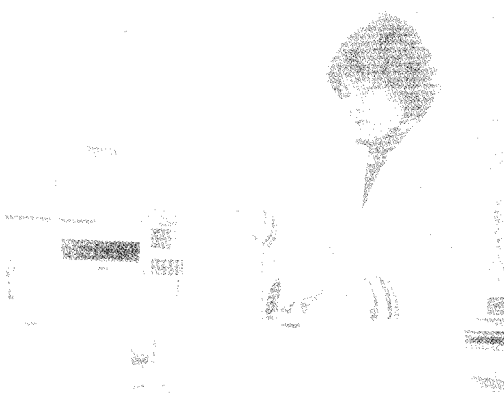
수도 행정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미급수가구에도 건강 보호를 위해 상수 수질 검사를 무료로 실시해오고 있으며, 비닐하우스 등 무허가 건물에도 급수를 실시하여 물 공급 소외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히 노력해왔다. 또

한 지난해까지 7년 동안 노후관 교체와 누수 탐사, 블록 시스템 구축 등 유수율 제고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6%의 향상 효과를 거두어 현재 구리시의 유수율은 86%에 이르고 있다.

행정 전문화를 지향하는 구리시 환경관리사업소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 건강한 도시'란 철학을 바탕으로 늘 시민들의 편에 서서 생각하고 행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2007년부터 'CALL&RUN' 제도를 마련해 급수 공사 신청 시 직접 수도과를 방문하지 않아도 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2008년





부터는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의 전산화로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의 토대를 마련했다.

“시설 개선과 방류 수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 온 결과 구리 하수처리장이 친환경 생태 시설로 탈바꿈했습니다. 지금은 흰뺨검둥오리의 모습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영수 하수과장은 깨끗한 처리수를 활용해 인공폭포, 실개천 등 다양한 시설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개방함으로써 혐오 시설로 인식되어 온 하수처리장의 이미지를 도심 속의 휴식

공간으로 전환시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12일 봄을 맞아 새롭게 단장해 문을 연 구리시 곤충생태관(www.guribugs.go.kr)은 작년 한 해에만 3만 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방문할 정도로 호응이 높았다.

A 놀랍고, B 아름답고, C 깨끗한 상하수도 행정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급수 공사 신청 시 부담이 되는 시설 분담금을 절반가량 낮출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하루라도 빨리 급수 보급률 100%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국 소장은 급수 보급은 물론 환경 전 분야에 걸쳐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꾸준히 펼쳐갈 생각임을 밝혔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환경관리사업소의 도전은 지난 2007년 5월, 구리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영문 Amazing(놀라운), Beautiful(아름다운), Clean(깨끗한)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ABC 구리운동’과 잘 접목되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정수장이 자체적으로 Clean Day를 지정해 수도과 전 직원이 참여하는 자체 청소 및 정화 활동으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온 것, 하수과에서 매주 수요일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직원들이 함께 모여 토론했던 ‘하수처리공정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활동 등은 구리시 상하수도 행정의 앞선 모습을 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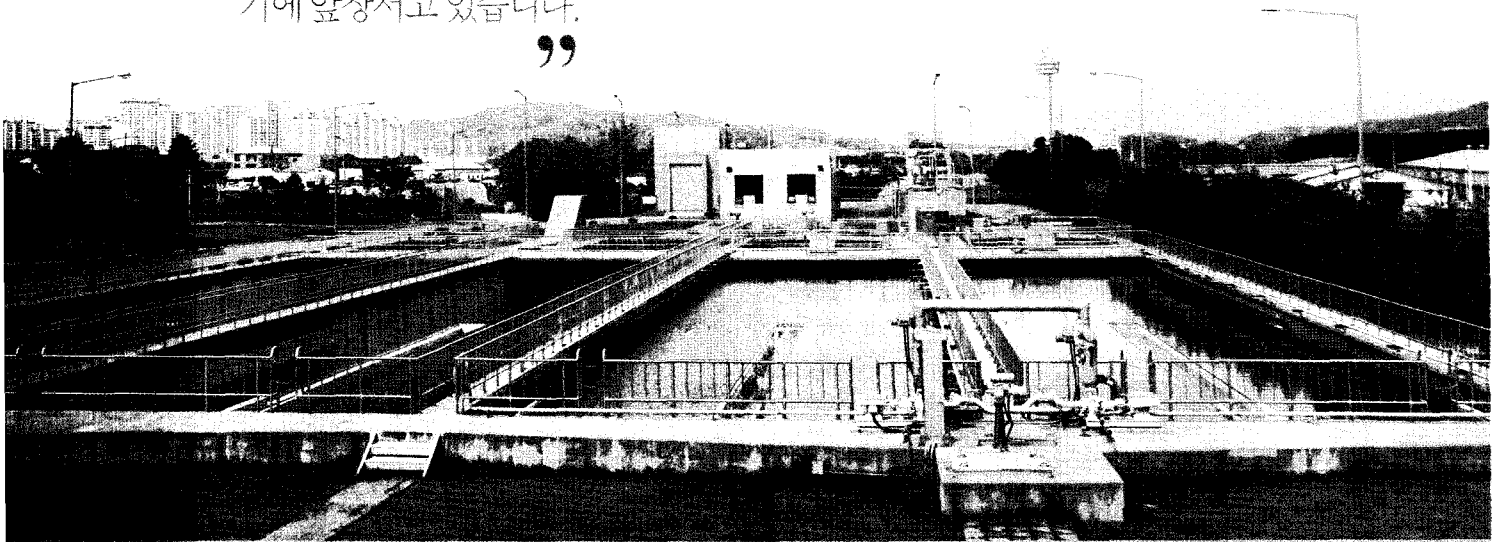


김정국 소장
구리시 환경관리사업소

66

진취적인 발상을 통해 친환경 생태도시를 건설해야 한다는 박영순 시장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고구려의 도전정신으로 더 맑고 깨끗한 구리시 만들기

99



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구리시는 지난 2002년 상수도 분야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한 바 있으며 2005년에는 전국 2위, 2007년에 다시 전국 1위에 올랐다. 또한 2008년에는 상수도 공기업 재정자립도 평가에서 장려상과 함께 기관 표창을 수여받기도 했다. 하수 분야 또한 24시간 상시 감시 체계를 유지하며 능동적인 행정을 펼친 결과, 2007년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전국 하수종말처리시설 평가에서 우수 시로 선정되었으며, 2008년에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하수도 분야에서 우수 시로 선정됨과 동시에 한강유역환경청 시행한 강수계관리기금 성과 평가에서도 최우수 시로 선정되는 등 구리시의 우수한 환경 행정 능력을 대내외로 과시한 바 있다.

오전물 두려워하지 않는 구리시민의 고민은

구리시는 오랜 시간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시범사업의 선두주자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하수과에서 정부의 녹색성장에 부응해 2010년 4월 말 가동 예정으로 '13 시스템 시범사업'의 일환인 분리막 고도처리 공법을 도입하여 현재 시공 중에 있다. 1일 6,250m³를 처리할 수 있는 이 시설은 국내에서 개발한 분리막을 이용해 방류 수질의 상태를 수명장 용수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재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구리시는 왕숙천의 수질 향상과 한강 상수원 보호는 물론,

쓰고 버린 물을 재처리하는 방류수의 자원화를 통해 앞으로 예상되는 물 부족 현상을 해소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리시가 이렇듯 시범사업을 도맡아 진행하게 된 것은 서울과 가까이 위치한 지리적 여건과 도농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는 점 등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또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범사업이란 앞으로 진행될 본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초 단계이기에 자신이 가진 장점은 물론 단점까지도 공개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뿐만 아니라 본래 하던 업무 외에 더 많은 관심과 손이 가기 마련이다. 하지만 구리시가 열린 마음으로 언제든지 시범사업을 수락하고 수행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직원 모두가 그만큼 책임감과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김정국 소장은 말한다.

“쓰레기라고 취급받던 것들이 순환 되어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이 되고, 위대한 예술품으로 거듭나는 세상이라고 시장님께서 늘 말씀하십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직원들은 이 말을 가슴에 품고 한 번 더 주위를 둘러보며, 한 걸음 더 발로 뚫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패의 두려움과 어려운 과정이 기다리고 있지만 멈추지 않고 도전하는 것,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 더 맑고 깨끗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구리시 환경관리사업소의 신념이야말로 유채꽃이나 한강보다도 더 맑고 향기롭게 느껴진다. ☺